

광주하수처리장 악취 줄어든다

슬러지처리시설 개선 완료

설계기준 절반 수준 악취 저감

내년까지 노후시설 공사추진

광주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31일 “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고농도의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한 악취방지시설 개선공사가 2년여 만에 완료됐다”고 밝혔다.

악취는 설계기준인 300배에 훨씬 밑도는 165~173배로 파악됐다. 광주하수슬러지처리시설은 지난 2012년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으로 하수슬러지 해양 배출이 불가하게 됨에 따라 일일 하수슬러지 330t을 처리할 수 있는 에너지자원화 시설을 2012년 1월 14일 준공됐다. 이 시설은 광

주시 관내 3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자체 건조해 발전소 연료 및 시멘트 원료로 유상 공급하고 있다.

시는 당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을 건설하면서 법적 기준치인 복합악취 500배보다 강화된 300배를 설계기준으로 잡아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슬러지 건조과정에서 발생한 악취가 설계기준을 초과해 2015년부터 건설사에 하자보수를 요구, 3차례에 걸쳐 시설을 개선하고 보완해왔다.

이와 함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항구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개선을 위해 2015년 5월부터 시와 시의회, 광주환경공단, 전문가, 시민단체 등 14명으로 구성된 악취 전문조사위원회의 환경기초시설개선TF팀(위원장 최재원 광주대 교수)을 운영했다.

지난 2년여 동안 16차례 TF 기술자문회의를 열어 고농도의 악취를 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전국 최고 수준인 5단 악취세정방식과 연소방식(탈취로)으로 병합처리

하는 시설을 지난 7월 설치 완료하게 됐다.

이후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마치고 2개월간 시운전을 실시해 성능을 확인했다. 완벽한 성능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2개의 공인기관에서 총 12회에 걸친 성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악취배출농도가 165~173배로 설계기준을 훨씬 밑도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사업비 99억원을 들여 제1하수처리장의 노후 악취방지시설을 전면 개선해 주변 지역 악취 민원을 해소하고 쾌적한 하수처리장을 조성하는 악취저감사업을 추진중이다.

김석준 시 생태지질과장은 “악취 개선을 위해 민·관·의회가 거버넌스를 구성해 2년여 동안 협정한 결과 성과를 거두게 됐다”며 “그동안 민원을 유발한 하수처리장 주변 하수슬러지처리시설과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악취를 잡아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시민안전 꿈꿈 점검 광주시 119특수구조단 항공구조구급대는 지난 30일 광산구 송정동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혈압측정, 혈당체크 등 기초 건강검진을 하고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단독보형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는 사랑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광주시 119특수구조단 항공구조구급대 제공>

시내버스 분실물 ‘LOST112’ 검색하세요

11월부터 시내버스와 택시에 두고 내린 물건을 찾기 위해 인터넷 ‘LOST112’만 조회하면 된다.

광주시는 31일 “대중교통 유실물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11월1일부터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www.lost112.go.kr)(이하 ‘LOST112’)과 연계해 유실물을 통합 관리한다”고 밝혔다.

현재 유실물을 찾기 위해서는 버스운행 정보시스템과 택시운송사업조합 홈페이지 등을 일일이 검색해야 하는 등 유실물 관리가 일원화되지 않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LOST112’는 유실물 발생 시 검색은 물론, 온라인 분실신고할 수 있고, 유실물의 색상, 사진, 보관장소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잃어버린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시는 시내버스 10개사, 법인택시 76개사,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협조를 요청해 ‘LOST112’ 시스템에 사용자등록을 마치고 있다. 또 시 홈페이지 하단에 ‘LOST112’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배너를 게시하고, ‘시민 맞춤형’에 LOST112로 바로 연결되는 ‘시내버스·택시 유실물 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도시재생으로 살기 좋은 광주 탈바꿈”

안평환 초대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장

난개발·양극화 균형 회복

마을 살리기 청년과 협력

마을공동체 300곳 내실화



“시민들에게 도시재생이라는 용어가 아직도 생소한 것 같아 걱정입니다. 삭막하고 사람이 사라진 도시공간이 예전처럼 복적이고, 서로 보듬어주고, 아껴주며 사람 냄새나는 곳으로 탈바꿈시키는데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가 주축이 돼 노력하겠습니다.”

25년간 광주 YMCA 사무총장, 살기 좋은 광주만들기 네트워크 공동대표 등을 역임한 안평환(50) 초대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장이 ‘도시 광주와 공동체 재생’이라는 과업을 받아들였다. 그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으로 왜곡되면서 고밀·고층 개발의 장이자 사의 추구의 각축전이 돼버린 도시 광중에 새로운 변화를 주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자신의 주거지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머물게 하며, 시민의식을 높이고, 도시 내 공공성 향상을 통해 모두가 살기 좋은 광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 센터의 역할에 대해 설명해달라.
▲지금 광주는 도시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 고층주거지와 저층주거지가 양극화되고, 아파트들의 신규 공급은 계속되고 있지만 서민의 주거난은 여전하다.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를 민간에만 맡겨두면서 광주는 그 도시 정체성과는 전혀 관계없는 고층아파트만 즐비한 도시가 돼버렸다. 센터는 쇠퇴

한 지역에 다시 생기를 돌게 하고, 서민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하면서 도시의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하겠다.

- 센터 개소가 늦은 감이 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서민 주거복지, 쇠락지역의 도시재생을 위해 공공이 역할을 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본다. 문재인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정책을 내놓은만큼 원주민이 계속 거주하고, 그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민·관·인·평화·나눔·대동정신의 가치가 광주라는 도시공간에 구체적인 모델로 탄생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준비하겠다.

- 이미 쇠락한 마을, 도시를 살리는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공감한다. 쇠락한 지역의 주민은 떠날 생각만 하고 있으며, 활력을 불어넣을 인제도 너무 부족하다. 고령인데

다 영세민이 대부분이어서 자체 동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지역 청년들과의 결합이 중요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도시를 사람 사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명제인만큼 어려운 여건에서도 돌파구를 마련할 생각이다.

- 센터의 주요 업무는.

▲현재 광주에 마을공동체의 수가 300곳이 넘는다. 지나치게 양적으로 팽창돼 있어서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 이들 마을을 다시 살릴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도시공간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도 실시해야 하며, 이해당사자, 행정, 전문가, 공기업, 민간건설업체 등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감대 마련도 시급하다. 광주의 도시재생 비전을 만들고 로드맵에 대해 합의하는 과정도 있어야 할 것 같다.

- 센터 자체적으로 하기에에는 한계도 있는 것 같다.

▲여러 단체나 기관, 마을공동체와 연계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 함께 일을 하는 것이 기본이다. 5개 자치구에 이미 유사한 성격의 센터들이 기능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센터, 평생교육원, 도시공사, LH, 전문가그룹 등과도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공동체가 유지되고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그 공동체가 소외·약탈당하고 변질되지 않도록 시민의식을 키우며 그 속에서 마을과 도시가 나아갈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폐쇄적이고 갇혀있는 광주가 도시재생을 통해 밖으로 열리고 혁신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도시재생의 기본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인만큼 이를 센터 업무의 기조로 삼겠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학생이 직접 뽑는 어린이·청소년 대표

청소년의원 선거 4~26일

광주시는 오는 4일부터 26일까지 ‘제2대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를 한다.

지난달 13일까지 어린이·청소년의회 임후보 등록을 통해 모꼬지당, 두드림당, 청년의당, 사람답게살고싶당, 동동당, 내누리당 등 6개 정당에서 42명의 비례대표 후보자가 출사표를 던졌다.

오는 4일 5·18민주광장에서 진행되는 광주청소년독립페스티벌 현장의 1차 사전투표를 본격적인 어린이·청소년의회 선거가 시작된다. 투표는 만 9~18세가 지 광주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면 할 수 있

고, 현장투표와 온라인투표 중 1인 1회 선택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6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하는 현장투표는 투표소 설치 가능한 초·중·고교에서 교내 투표와 기관 방문 투표, 게릴라 투표 등으로 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광장이나 공공장소에서 진행되며, 온라인 투표는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온라인시스템(0919vote.kr)에서 할 수 있다.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 선거는 정당 정치를 통해 집권하는 원리로, 인물선거가 아닌 정책공약으로 투표하는 비례대표 방식이다. 정당 득표수에 따라 각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수가 배분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영산강 상류를 지키자”

14일 김대중센터서 포럼

광주시,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광주전남 녹색연합은 오는 14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 212·213호실에서 영산강 상류 수질개선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는 전문가, NGO,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이 참석해 광주천, 풍영정천 등 영산강 상류 수질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성기 초선대 교수가 ‘영산강 상류 수질개선 방안’, 김종일 광주전남연구원 사회환경연구실장이 ‘영산강 유지수량 증대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하고, 김병안 광주대학교수가 폐널 및 청중토론을 이끈다.

윤현석기자chadol@

북구, 삼각동 토지

- 광주 북구 삼각동 209, 209-1번지 - 203평
147-4, 11, 15번지 - 313평
- 31사단, 삼일아파트 지나서 옆마을
- 총 516평, 필지별 매매가능
- 아파트 예정 후보지 1순위 지역
- 장기간 투자 최고지역
- 매매 - 8억7천7백만원 (평당 170만원)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한전(KPS)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9억9천6백만 (평당 70만원)

“무인텔”

콘도 / 리조트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
도곡 관광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2013년 준공)
- 3개동, 객실 52개, 각 호실 개별등기
- 감정가/시세 70억, 매매 55억
- 온천지구 내 ‘(주) 바리오 화순’에
650억 투자 예정 (2018년 2월 착공예정)
- 요양병원, 연수원 등 용도변경 가능
“타 물건과 교환가능”

주인직매 010-3605-5000